

전주 곳곳서 울려 퍼진 '재즈 선율'

힐링·치유 선사 '전주문화재야행' 성료

제1회 전주재즈페스티벌 개최... BMK·임인건밴드·재즈보컬 김주환 등 공연 펼쳐져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미국 뉴올리언스의 정통 재즈 선율이 울려 퍼졌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한옥마을 내 오목대 정통정원을 무대로 한 '메인공연' 스마무달 야외마당과 대시습청 앞을 무대로 한 '거리공연(미니스테이지)' △전주지역 재즈바와 공연장 7곳에서 연주되는 '재즈어라운드' △재즈강연, 포토존, 재즈영상물 즐길 수 있는 남부시장 청년몰의 '재즈컨트리뷰션관' 등으로 꾸며졌다.

페스티벌은 첫날 오후 Hom Tom(호른 토니)과 미8군 브라스밴드인 Spartan Brass Band(스파르탄 브라스밴드)가 전주한옥마을 거리 곳곳을 누비며 뉴올리언스 스타일의 활기찬 재즈 연주를 선보이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오목대 정통정원에 마련된 메인무대에서는 김승수 시장의 축제 개막선언과 함께 공연의 헤드라이너이자 전주 재즈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이기도 한 임인건밴드와 소울곡도 BMK의 공연이 펼쳐졌다.

축제 둘째 날인 18일에는 재즈디바 말로, 독보적인 재즈보컬 김주환이 이끄는 밴드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빅밴드인 브랏소니 빅밴드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임인건 전주재즈페스티벌 음악감독은 "전주는 관소리의 고장이고 우리의

소리와 전주재즈페스티벌이 지향하는 뉴올리언스 스타일의 재즈는 그 뿌리가 '한'을 '흥'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면서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전주한옥마을에서 거리 축제형식의 재즈페스티벌은 대형무대 공연을 위주로 하는 페스티벌과 차별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문체부, 하이트진로, 디오니 등의 후원 전주시 주최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초여름 밤의 정취를 느끼며 전주의 역사와 놀이, 체험 등을 즐기는 전주 문화재야행이 참가자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라감영 일원에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2022전주문화재야행'(이하 전주야행)을 개최했다.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전주야행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면 사전예약과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전면 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마스코트인 태조 이성계와 야행이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퍼포먼스로 문을 연 이번 전주야행에서는 온·오프라인 포함 총 31개의 대규모 프로그램이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라감영 일원에서 펼쳐졌다.

또한 어진반차도와 함께 알일이 수놓은 한지등은 거리를 불 밝혀 고즈넉한 한옥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관광객이 손수 만든 한지등도 거리를 가득 채우면서 경기전 일대가 수려한 빛

으로 물들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전주야행은 치유의 공간 프로그램 일환으로 △명상 △극악 △차회 △음악 △휴식의 5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한 시민과 여행객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기도 했다.

경기전 서쪽 돌담길과 경기전 광장에서는 유료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매년 전주야행의 효자 콘텐츠였던 한지등 만들기 체험은 물론,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갓 만들기 체험도 성황을 이뤘다. 이와 함께 국가문화재지정 예고된 '한복 입기' 일환으로 문화재 드레스코드도 선을 보였다. 또 경기전 서문 돌담길에서는 '시간에게 듣는 실록의 진실'도 선보였다.

축제의 백미인 거리 공연도 경기전 서문 앞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다. 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코미디 풍선, 키다리, 버블쇼 등 여섯 곳의 단체 및 예술가가 참여해 서커스와 마술을 뽐냄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경기전 소나무 숲에서는 방수미 명창의 사화로 예화무용단, 전주관소리합창단, 버리극악단 등이 참여하는 개막공연도 펼쳐졌다.

/김윤상 기자

"전주 미래산업 이끌 수소산업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지역 강소기업 비나텍 방문 애로사항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인수위 첫 현장 행보로 지역 강소기업인 비나텍을 방문해 수소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전주시의 친환경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밝혔다.

우범기 당선인을 비롯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비나텍 전주 본사를 찾아 성도경 대표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소연료전지 등 회사의 현황과 비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 당선인은 "전주의 미래산업을 이끌 백년대계를 가지고 탄소산업에 이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인재양성, 자금조달 등 수소산업 추진을 위해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당선인을 비롯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지역 강소기업인 비나텍을 방문해 수소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전주시의 친환경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우 당선인은 "수소산업은 대기업이 아닌 제대로 된 의지를 갖춘

중소기업과 함께 꾸러 지역 발전과 지역 기업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생각이다"며 "기업이 필요로 한다면 전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주, 완주형 수소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 완주군과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또한 "미래 에너지 산업을 토대로 성공 모델을 꾸릴 수 있는 전주형 시스템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우범기 당선인의 공약의 방점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릴레이 기업방문의 일환이다.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민선 8기에 시정 추진에 중점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보다.

한편 비나텍은 1999년 7월에 창립 때 현재 12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Super-Capacitor(에너지 고출력 활성탄소전지) 생산으로 2019년 대한민국 100대 강소기업에 선정되었고, 2020년 코스닥에 상장된 전북지역 대표 기술강소기업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시행규칙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후속조치 단행

조례연구회, 시행규칙 정비 위한 총 25건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전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시행규칙 정비를 위해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 25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전주시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은 지난해 전주시의회 조례

연구회의 주도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용역 연구는 현재 제정돼 있는 470여 개의 조례와 130여 개의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있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이 누락돼 있는 경우 50여 건과 필요한 규정이 미제정돼 있는 경우 39건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남숙 의원(조례연구회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들은 시행규칙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개정 및 폐

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또 송상준 의원(조례연구회 회장)은 "시행규칙의 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행규칙들에 대한 권고 방식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조례연구회는 제12대 전주시의회에서도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다음 달 4일부터 8월 중순까지 5기와 6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4일부터 진행되는 5기 프로그램은 △일상 해방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을 풀고싶다' △마음 챙김이 필요한 20~30대를 대상으로 한 '내 안의 울림' △코로나 우울로 행복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 마음의 행복 정일' △대인관계 회복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 마음을 안아줘' △색으로 다스리고 싶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색다른 나의 일상' △활력이 필요한 주부를 대상으로 한 '마음을 기쁘다'로 구성돼 있다.

6기 프로그램은 7월 18일부터 4주간 △자신감을 찾고 화난 감정을 다스리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 안의 또 다른 나' △코로나 우울로 심신 회복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활력up! 기분up!' △항기로 달래고 싶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나만의 향기를 찾아줘' △나를 응원하고 싶은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더 가까이' △추억받고 싶은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나를 발견하는 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 돌보기 행복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개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17일 전주기전중학교 1학년 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Dream Job School'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진로박람회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발맞춰 추진해온 진로특성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들이 4차 산업 관련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함으로써 진로 성취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AI(인공지능)로 보마스터 △6T(사물인터넷) 디자인작 △로봇공학(6축 보행, 펜싱로봇) △OZOBOT △6T 스마트하우스 △스

카티고 △언플러그드 로보코딩 △AI자율주행자동차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돼 전문가들과 각 직업군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형배 전주시전통학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빠른 변화의 시대에 진로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함으로써 진로선택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공모를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단 시설에 대한 각종 개선방안과 공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공단 운영사업 관련 주요 정책,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

으로,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수익 창출 아이디어 사업,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공단 각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 또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시설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단순 행사성 사업,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사업의 사업비는 5000

만 원 이내여야 한다.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주에서 근무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제안서는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담당자 이메일(bk21ho@jss.or.kr)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 내부(경영지원부) 또는 각 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역사·전통문화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백제 견훤대왕 표준영정 제작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후백제 견훤대왕 표준영정 만든다

전주시, 표준영정 제작 위한 학술세미나 가져

후삼국시대 주역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 견훤대왕의 표준영정이 제작된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역사·전통문화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백제 견훤대왕 표준영정 제작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후삼국시대 주역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 견훤대왕의 표준영정이 제작된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역사·전통문화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백제 견훤대왕 표준영정 제작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박현숙 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표준영정제작 사례와 관련 절차,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도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교학과 교수는 문헌기록과 설화, 후대의 평가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견훤대왕의 용모와 후백제 건국 및 국가 경영의 내용 등을 고증했다. 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견훤대왕의 후백제 정성기였던 60세 때 모습을 표준영정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삼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을 좌장으로 조법승 우석대학교 교수, 진정환 국립인식박물관 학예실장, 김승대 전라북도 학예연구원, 강희경 후백제선왕회 이사장, 이춘구 후백제시민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졌다.

시는 향후 후백제학회와 후백제

문화원 지방장부협의회 소속 시·군, 후백제선왕회 후백제시민연대와 함께 표준영정제작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면밀한 고증과정을 거쳐 견훤대왕의 표준영정을 제작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표준영정제작에 대한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후백제문화원 7개 지자체(전주·문경·논산·상주·안주·진안·장수)가 함께 후백제의 왕도 전주에서 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역사에서 잊힌 후백제 역사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견훤대왕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견훤대왕의 용모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전문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후백제의 관한 인식이 재조명되면서 견훤대왕의 표준영정제작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져 견훤대왕의 용모 관련 연구 및 표준영정 제작을 위한 절차로 이번 학술세미나가 열리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전주만의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역사문화 중 하나"라며 "후백제 견훤대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토대로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선양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견훤대왕과 후백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